예향 빛낼 예술영재 키운다

광주시교육청 예술영재원 올 수강생 중학생 대상 2월 공모

음악·미술·판소리·무용 등 무료 강의

"자, 활을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한번 연주해 보자."

토요일이었던 지난 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지하에 자리한 예술영재교육원 강의실.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전남대 강사)씨와 김지수(살레시오여중 2년)양이 레슨에 한창이었다. 연습실 한켠에는 지수양의 엄마 류선희씨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씨는 레슨을 할 때 엄마가 함께 참여하기를 권한다. 아무래도 엄마가 레슨 받는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선생님이 지적했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아이가 집에서 연습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한 레슨실에서는 판소리 강의가 한창이다. 이정현양은 주소연(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씨가 부르는 판소리를 녹음기에 녹음하며 한대목 한대목을 따라부른다. 서기문·최재영씨 등의 지도를 받는 미술강의실 역시 열기로 후끈하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예술영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걸맞는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말 문을 열었다. 과학, 수학 등에 치중했던 영재교육을 예술로 확대시킨 셈이며 대상은 중학생들이다.

교육청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음악실, 미술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현재 전형 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은 모두 23명(음악 12명, 미술 11명). 이들은 쟁쟁한 강사진으로부터 주 2회씩 1대 1 수업을 받는다.

음악분야에서는 광주대 김정아 교수를 비롯해 함정욱·동수정·양새미·이종경·안갑열·박경숙·김선희씨 등이 레슨을 맡고 있으며 판소리의 주소연, 미술의 서기문·최재영·조현수·김영철씨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강사 역시 공모 과정을 거쳤고, 일부는 초빙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주 2회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4시간씩 집중 레슨을 받는다. 또 음악이론 수업도 병행하며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개인 연습실에서 연습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출범 당시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탓에 지원자가 53명 그쳤지만 현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영재교육원의 장점은 집중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레슨 시간이 회당 40~50분 정도인 데 반해 교육원에서는 2시간씩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을 경우 회당 10~15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레슨비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쟁쟁한 강사들에게 전액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기요인이다.

전액무료로 진행되는 예술영재교육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예술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2일 영재교육원에서 양새미씨가 김지수양〈오른쪽〉에게 바이올린을 레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양새미씨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차에 기회가 닿아 참여하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테크닉 뿐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자세 등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수연씨는 "아이가 레슨 받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챙겨줘야 할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 좋다"며 "올해도 교육원에서 아이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재교육원은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원 일정상 1기의 경우만 12월~2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했고, 1기생들은 모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10년 신입생은 2월중 공고를 내고 모집할 예정이며 무용 분야가 추가된다. 학교장 추천제도 폐지 등 현재 전형 방법을 보완중이며 교육원측은 최근 강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의 일정과 내용 등 교육과정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다. 문의 062-380-89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올레꾼과 이중섭

제주도는 박물관 천국이다. 제주의 어느 곳을 가던지 특색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만나게 된다. 제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연사 박물관에서부터 동심을 설레게 하는 인형박물관 등 줄잡아 90곳이나 된다.

그중에서도 서귀포 중앙로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6·25 동란기인 1951년 삶과 예술의 자유를 찾아 제주도로 남하해 1년 간 머물렀던 이중섭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가 지난 2002년 세웠다. 이방인으로서 서귀포와 인연을 맺은 화가의 흔적을 간직한 미술관은 매년 전국에서 7만여 명이 다녀간다. .

신정연휴인 지난 2일 찾은 이중섭 미술관은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그런데 이날 전시장에는 등산복 차림의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광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이었다.

이튿날 찾아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 절반 이상이 배낭을 멘 등산객들이었다. 사실 사진작가 김영갑(1957~2005)의 갤러리는 일반인들이 쉽게 찾기 힘든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있는 애호가나 그의 드라마틱한 삶에 매료된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과 싸우면서 폐교를 개조해 만든 미술관에는 그의 '분신'들이 전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등산복 차림의 관람객에게선 '마니아 미술관'이라는 면모를 찾기 힘들었다. 물론 카메라를 어깨에 멘 사람들이 많았지만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등산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그렇다면 이들 미술관에 '갑자기' 몰려든 등산객들은 누구일까? 바로 올레꾼들이다. 제주 올레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레코스에 포함된 이들 미술관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중섭미술관은 지난해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집계한 결과 방문객 수는 9만512명으로 전년 동기 7만1174명에 비해 27.2%가 늘어났다. 올레꾼들이 올레길 코스에 들어 있는 미술관에 들러 그림을 감상한 덕분이다.

이들 미술관의 '올레특수'를 보면서 문득 무등산 길목에 위치한 한 미술관의 '넋두리'가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중순 무등현대미술관(광주시 동구 운림동)은 '산에만 가십니까?'라는 빨간색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 미술관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목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시회를 기획해도 미술관을 찾는 등산복 차림의 관람객은 손에 꼽을 정도다. '언젠가는 미술관에 들러주겠지'하며 3년을 기다렸건만 달라지지 않자 등산객들의 무관심을 꼬집는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것이다. 이곳 뿐만이 아니다. 무등산 길목엔 의재미술관, 우제길 미술관 등 문화명소들이 여럿 있지만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등산객은 많지 않다.

올해는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는 것 만큼 전시장을 찾아 '마음의 건강'도 지키는 등산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산에만 가십니까?'라는 현수막이 또 다시 광주에 내걸려서야 되겠는가.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무등산 화가' 박상섭씨 별세

원로 서양화가 박상섭(사진)씨가 지난 1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광주 출신인 고인은 광주사범대학(광주교육대학교 전신)을 나온 뒤 이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주로 무등산 풍경을 향토적인 색채로 표현, '무등산 화가'로 불렸다.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화면 분할로 무등산의 넉넉한 풍경을 담아냈다.

붉은 색과 흰 색을 병치시켜 무등산의 생명력과 설경을 한 폭에 담은 '무등의 정'(1993년작) 등의 작품을 남겼다.

또 눈 쌓인 초가, 포구의 풍경, 폐선 등 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소재로 즐겨 다뤘다.

출어를 준비하는 어부와 어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출어전'(1977년작) 등의 작품에는 남도 어민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때 비구상 작업에도 몰두, 작품 '력'(力)으로 1975년 전남도전 최고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거대한 빙하가 녹아서 부서지는 듯한 에너지와 힘이 넘친다는 호평을 받았다.

어려운 후배들을 돕는 등 미술계 활동도 활발했다. 한국미술협회 초대 광주미술협회장을 역임했고, 비구상 미술그룹인 에뽀끄 창립 회원, 전우회, 목우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 국전 입선, 프랑스 르 살롱전 입선, 광주시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무등의 정'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8일 오전 8시, 장지는 담양 천주교묘원. 062-231-89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묵으로 펼친 지리산·설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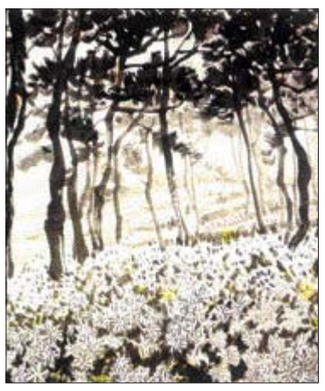
김해용 첫 개인전… 20일까지 무등갤러리

한국화가 김해용씨가 오는 20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주왕산, 동해안, 설악산, 지리산 등지의 풍경을 수묵담채로 표현한 신작을 선보인다.

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하고 옅은 다채로운 색의 향연과 물처럼 흐르는 선의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묵을 덧칠해 바위의 강인함을 표현했으며 묵의 자연스러운 스밈을 통해 물의 잔잔한 흐름도 형상화했다.

옹기, 초가, 폭포 등 동양의 정적인 감성이 잘 묻어나는 소재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냈다.

소나무 숲에 피어난 구절초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절초 피던 날'과 옹기의 질감을 투박하게 그려낸 '정'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구절초 피던 날'

한국화대전 특선, 광주시미술대전 입선 등을 수상했고 광주한국화실사회전, 서울 구상회원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실사회, 묵취인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